

『韓國語教育研究』(第 11 号) 別刷

ISSN 2186-2044

【研究論文】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의 경계선  
-점진성 동사를 중심으로-

목 중균

日本韓國語教育学会

2021年9月

#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의 경계선 -점진성 동사를 중심으로-

목 중균

本稿は ‘(雪が)積もる(쌓이다), (株価)가上がる(오르다)’のように“時間の経過と共に主体の変化がだんだん拡大・進展していく事件(event)”を表す「漸進性動詞」が内在している語彙的意味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漸進性動詞」は、これまでの先行研究ではそれほど注目を集めることがなかった。また、‘-고 있(-ko iss-)’と共起し<進行相>を実現することや、また ‘-어 있(-eo iss-)’とも共起し<結果相>をも表すことができることから、概ね限界動詞(telic verb)として認識されてきた。しかし、これらの動詞の語彙的意味、特に限界動詞の‘終結性[ $\pm$ telic]’と比較してみると、当該‘事件(event)’を終結させる‘事件の限界点(telic point)’の在り方、そして下位事件(subevents)の展開方法において大きく異なっ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本研究の結果によって、限界動詞の内在する語彙的意味が決して一枚岩では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

## 1. 들어가기

현대 한국어의 <진행상>은 예문 (1)과 같이 (자)동사 어간에 보조형태소 ‘-고 있-’이 공기하여 해당 동작이 계속됨을 나타낸다.

- (1) a. 지나가 학교에 가고 있다.
- b. 눈이 쌓이고 있다.
- (2) a. 지나가 학교에 가 있다.
- b. 눈이 쌓여 있다.

그리고 해당 동작이 완결된 이후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결과상>은 예문 (2)와 같이 (자)동사 어간과 ‘-어 있-’의 결합에 의해 실현된다.<sup>1</sup>

<sup>1</sup> 운동동사 중 일부 타동사는 ‘지나가 옷을 입고 있다’와 같이 ‘-고 있-’과 결합하여 <진행상>은 물론 <결과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시 말해, 타동사와 ‘-고 있-’의 결합은 상적 의미가 중의적이다(이 문제에

예문 (1), (2)의 ‘가다’와 ‘쌓이다’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행상> 과 <결과상> 을 모두 실현하는 동사로,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마다 그 분류 방법은 달라도 동일한 동사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다.<sup>2</sup>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들 동사를 고찰하고자 한다.

상(aspect) 연구와 관련하여 ‘동사 분류’는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였으며 현재까지 많은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sup>3</sup>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지대한 Vendler(1967)의 동사 분류에 따르면 (1), (2)의 ‘가다’와 ‘쌓이다’는 모두 ‘한계동사(telic verb)’로 분류된다.

한계동사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event)’이 종결되는 ‘한계점(telic point)’을 본유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동사로, 해당 사건이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사건은 강제적으로 종결되며 동시에 변화의 결과 상태가 나타나는 동사(工藤1995:73)로 이해된다. 그러나 모든 한계동사의 한계점이 이러한 것은 아니다.

(3) a. \*지나가 아까보다 더 학교에 갔다.

b. \*강아지가 아까보다 더 죽었다.

(4) a. 눈이 아까보다 더 쌓였다.

b. 주가가 어제보다 더 올랐다.

(3), (4)의 밑줄 ‘아까보다 더’는 사건의 종결 시점과 발화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더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3)의 ‘가다, 죽다’는 어울리면 비문이 되나 (4)의 ‘쌓이다, 오르다’는 문제없이 결합한다. 결국, (3)의 사건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되어 더는 진행되지 못하는 사건인데 비해, (4)의 사건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한계동사의 어휘적 의미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한계동사는 어휘적 의미의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하위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3)의 한계동사와 (4)의 한계동사(정확히는 ‘점진성 동

대해서는 한동원(1999), 고영근(2006), 목종균(2015)를 참조할 것.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글에서는 논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1), (2)와 같이 <진행상> 과 <결과상> 이 형태적으로 구별되는 자동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음을 밝힌다.

<sup>2</sup> 油谷(1978), 박덕유(1998), 조민정(2007)의 동사 분류를 확인한 결과, ‘가다’와 ‘쌓이다’가 같은 동사 유형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sup>3</sup> 한국어의 상 연구와 관련한 동사 분류는 油谷(1978)를 비롯하여 이지량(1982), 정문수(1984), 이남순(1987), 浜之(1991), 김성희(1992), 박덕유(1998), 양정석(2002), 조민정(2007)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사)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에 대해 면밀하고 검토하여 이들 동사가 어떻게 다른지 소상하게 밝히고자 한다.

## 2.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

이 글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점진성 동사’의 어휘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나 그에 앞서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해 두고자 한다.

### 2.1 Vendler(1967)의 동사 분류

Vendler(1967)의 동사 분류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동안 한국어의 상 연구와 관련해 많은 인용과 논의가 있었기에 상세한 고찰은 피하고 본고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살펴도록 하겠다.

Vendler(1967)는 <표 1>에서 보듯이 ‘상태성[±state]’, ‘종결성[±telic]’, ‘순간성[±punctual]’이라는 3가지 자질(feature)을 기준으로 하여 영어의 동사(구)를<sup>4</sup> 4종류로 분류하였다.

Vendler(1967)는 먼저 ‘상태성[±state]’이라는 자질에 근거하여 [+state]인 상태동사와 [-state]를 가지는 비상태동사(=운동동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운동동사(=행위동사, ‘완수동사’, ‘달성동사’)를 대상으로 ‘종결성[telic]’ 유무에 따라 사건의 한계점이 없는 [-telic]의 자질을 가지는 ‘행위동사(activity)’는 ‘비한계동사’로, ‘완수동사(accomplishment)’와 ‘달성동사(achievement)’는 사건의 한계점을 어휘적으로 내재하는 ‘한계동사’로 분류하였다.

---

<sup>4</sup> Vendler(1967)의 동사 분류는 <표 1>의 ‘완수동사’에 제시된 동사 예(make a chair, run a mail)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동사가 아닌 동사구(verb phrase)이다. 그리고 밑줄 친 ‘run’과 ‘run a mail’도 주의해 주기 바란다. 즉, 동일 동사(=run)가 두 종류의 유형으로 분류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선 이 글 23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표1〉 Vendler(1967)의 동사 분류

구 분	상태성	종결성	순간성	동사 예
상태동사 (state)	+	-	-	believe, desire, have, knew, love
행위동사 (activity)	-	-	-	<u>run</u> , walk, swim, drive a car, <u>push a cart</u>
완수동사 (accomplishment)	-	+	-	<u>run a mail</u> , <u>push a cart to the</u> <u>supermarket</u>
달성동사 (achievement)	-	+	+	die, fine, lose, recognize, reach, stop

(동사 예는 影山 1996 : 41, 일부 수정)

물론 이들 동사가 가지는 종결성은 아래와 같은 시간 부사구(=‘for/ in an hour’)와의 결합 여부를 통해 검증 가능하다.

- (5) a. Mary sang for/ \*in ten minutes. (비한계동사=행위동사)
- b. The snow melted \*for/in an hour. (한계동사=완수동사)
- c. The window shattered \*for/in a second. (한계동사=달성동사)

(김천학 2014:30)

(5)의 시간 부사구 ‘for an hour’는 해당 사건이 지속된 시간을 나타내고 ‘in an hour’는 사건이 해당 시간이 지난 뒤에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들 부사와의 결합 관계를 통해 ‘for an hour’와 결합하는 동사는 (5a)와 같은 [-telic]의 자질을 갖는 비한계동사이고, [+telic]의 자질을 가지는 완수동사(=5b)와 달성동사(=5c)는 ‘in an hour’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한계동사는 ‘순간성[±punctual]’ 내재 여부에 따라 해당 사건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punctual]의 자질을 갖는 ‘완수동사’와 지속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punctual]의 ‘달성동사’로 하위분류하였다.<sup>5</sup>

<sup>5</sup> Vendler(1967)은 ‘순간성[±punctual]’ 유무에 따라 지속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완수동사’와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달성동사’로 하위분류하였으나 이들 동사 모두 한계동사이기에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구별하지 않음을 밝힌다. 참고로 三原(2004:22)는 Vendler(1967)의 ‘순간성’에 대해 “동사 분류에 있어서 순간성은 2 차적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순간성을 제외한 자질만을 인정하고 동사를 세 가지 유형으로

## 2.2 工藤(1995)의 동사 분류

工藤(1995)의 동사 분류는 奥田(1977)의 동사 분류를 계승, 발전시킨 결과물로 奥田(1977)가 제안한 ‘動作’, ‘變化’라는 의미 자질에 ‘主体’, ‘客体’라는 개념을 더하여 아래와 같이 운동동사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sup>6</sup>

### (6) 工藤(1995)의 동사 분류

- |              |           |
|--------------|-----------|
| ①主体動作動詞      | — 非內的限界動詞 |
| ②主体變化動詞      | ┌ 內的限界動詞  |
| ③主体動作・客体變化動詞 | └         |

工藤(1995:73, 일부 수정)

차례로 살펴보면 ‘主体動作動詞’은 ‘泣く(울다), 食べる(먹다)’와 같이 ‘주체의 동작’이라는 사건만을 나타내는 동사이며, ‘主体變化動詞’은 ‘行く(가다)’와 같은 주체의 위치 변화, ‘死ぬ(죽다)’와 같은 주체의 상태 변화와 같은 사건을 나타내는 자동사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主体動作・客体變化動詞’은 ‘주체의 동작’에 의한 ‘객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타동사로 ‘入れる(넣다), 作る(만들다)’ 등이 이들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상 살펴본 工藤(1995)의 동사 분류는 일견 Vendler(1967)의 동사 분류와는 무관해 보이지만 두 연구자의 동사 분류, 즉 Vendler(1967)의 ‘한계성 유무’와 工藤(1995)의 ‘변화의 유무’는 일맥상통한다. 먼저 ‘主体動作動詞’가 나타내는 ‘주체의 동작’에 대해 工藤(1995:73)은 “必然的な終了限界のない非限界的な運動(필연적인 종류 한계가 없는 비한계적인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이들 동사를 ‘非內的限界動詞(=비한계동사)’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主体變化動詞’와 ‘主体動作・客体變化動詞’가 나타내는 사건에 대해서는 “新たな結果状態を生み出すことによって必然的に終了する運動(새로운 결과 상태가 나타나면 필연적으로 종결되는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이들 동사를 ‘內的限界動詞(=한계동사)’라고 불렀다.

이상과 같이 工藤(1995)의 동사 분류는 동작과 변화라는 사건의 질적 내용에 따른 동사 분류하였으나 ‘종결성[±telic]’이라는 자질도 염두에 둔 동사 분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Vendler(1967)와 工藤(1995)에 의한 ‘종결성 유무’와 ‘변화의 유무’는 상통한다고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sup>6</sup> 工藤(1995)는 현대 일본어 동사를 (6)의 3 가지 유형의 운동동사 이외에 [+state]의 자질을 가지는 ‘靜態動詞(=상태동사)’도 포함하여 총 4 종류로 나누었다.

할 수 있다. 다만, 한계동사에 대해 Vendler(1967)는 ‘순간성’에 따라 하위분류하였으나 工藤(1995)는 한계동사를 자동성과 타동성을 근거로 둘로 구분하였다.

### 2.3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를 가르는 가장 변별적인 자질은 다름 아닌 [±telic]에 있다고 하겠으나, 각각의 동사가 가지는 종결성에 대한 판단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7) a. He pushed the cart (for ten minutes).

b. He pushed the cart to the station (in ten minutes).

(Vendler 1967:100, 일부 수정)

(8) a. He sang (for hours).

b. He sang The international (in two minutes).

(三原 2004:20)

예문 (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for/in an hour’와의 공기 관계로부터 (7a)와 (8a)는 ‘비한계동사’로 판단할 수 있으며 (7b), (8b)는 ‘한계동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문장의 동사가 동일하다는 데 있다. 즉, 하나의 동사가 [-telic]이라는 자질은 물론 [+telic]이라는 자질도 함께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7), (8)의 문제는 밑줄의 동사구(verb phrase) 내의 요소에 따라 그 종결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사가 가지는 ‘종결성’을 판단할 때에는, 동사가 내재하고 있는 본유적 자질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7), (8)과 같이 동사 이외의 요소에 의한 것인가를 면밀히 따지고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sup>7</sup> 당연히 이 글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공유하며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한국어의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에 대해 검토해 갈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의 구별은 Vendler(1967)의 주장대로 ‘종결성’에 있으나,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가 표상하는 ‘사건 구조(event structure)’에<sup>8</sup> 있어서도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sup>7</sup> 동사 분류에 따른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三原(2004), 조민정(2000), 박소영(2011), 김천학(201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三原(2004:8)는 본 문제 해결을 위해 ‘動詞類型の變換を強制する要因を動詞分類自体から取り除き、「動詞」のみで分類が可能となる方法が必要(동사 유형의 변환을 강제하는 요인을 동사 분류 자체에서 제외하여, 동사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up>8</sup> 남승호(2007:66)는 ‘사건 구조(event structure)’에 대해 “술어가 지시하는 사건의 내부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 2.3.1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의 ‘종결성’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가 가지는 ‘한계점(telic poin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문수(1984)는 운동동사의 상 자질에 대한 검증을 위해 몇 가지 ‘객관적인 검증 틀(testing frame)’을 제안하였는데, 그 검증 틀은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를 구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9) a. 아기가 한 시간 만에 울었다.

b. \*아기가 울기 시작해서 다 우는 데 한 시간이 걸렸다.

(정문수 1984:59)

정문수(1984:58)는 (9a)와 같은 ‘T-만에 V-었다’의 함의 관계를 통해 운동동사의 종결성을 검증하였다. ‘비한계동사(=비완성풀이씨)’는 통상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한계점을 내재하지 못하는 동사로 이해된다. 따라서 (9a)와 같이 사건의 한계점을 나타내는 ‘T-만에’와 어울리게 되면 해당 사건이 개시될 때까지의 시간(=아기가 울기 시작할 때까지 한 시간 걸렸다)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9b)와 같이 해당 사건이 개시되어 종결될 때까지의 시간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계동사(완성풀이씨)’와 공기하는 ‘T-만에’은 (10)과 같이 해당 사건이 시작되어 종결될 때까지의 시간, 즉 해당 사건의 지속 시간을 나타내기에 (10b)와 같은 의미를 함의한다.

(10) a. 날씨가 한 시간 만에 개었다.

b. 날씨가 개기 시작해서 완전히 개는 데 한 시간이 걸렸다.

(정문수 1984:67)

이처럼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는 부사어 「T-만에」와의 결합 관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데 이런 결과는 이들 동사가 가지는 자질 [ $\pm$ telic]에 기인한다. 정문수는 아래와 같은 「T-동안」, 「V-다가」도 이들 동사의 ‘종결성’ 유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11) a. 아기가 한참 동안 울었다. (비한계동사)

b. \*비행기에서 십 분 동안 내렸다. (한계동사)

(정문수 1984:62, 71) ((7b) 일부 수정)



(12) a. 아기가 올다가 멈추었다. (=아기는 올었다)

b. 비행기에서 내리다 말고는... (#비행기에서 내렸다)

(정문수 1984:61, 69) (일부 수정)

해당 사건이 한계점을 향해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11)의 「T-동안」은 (11a)와 같이 비한계동사와는 결합 가능하나 (11b)와 같이 한계동사와는 어울리지 못한다. 그리고 (12)와 같이 사건의 중단을 나타내는 「V-다가」와의 공기에 있어, (12a)의 비한계동사는 괄호 안과 같은 의미적 함의(semantic entailment)가 성립되나 한계동사와 결합한 (12b)는 이러한 의미적 함의가 성립되지 않는다.<sup>9</sup>

그리고 운동동사의 종결성과 관련하여 한국어 상 연구에서는 그다지 다루이지 않았던 ‘정도부사’의 의미 해석도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의 종결성을 구별 짓는 검증 틀이 될 수 있다.

(13) a. だくさん歩いた。 (=많이 걸었다)

b. だくさん亡くなった。 (=많이 죽었다)

(影山 1993:54)

影山(1993)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도부사는 (13a)와 같이 비한계동사와 공기하면 "行為の量(=동작량)"을 나타내나, (13b)와 같이 한계동사와 함께 쓰인 정도부사는 "主語の數量(=주어량)"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몇 가지 검증(‘T-만에’, ‘T-동안’, ‘V-다가’, ‘정도부사’)을 이용하여 비한계동사와 한계동사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이들 동사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 특히 ‘종결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3.2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의 ‘사건 구조’

‘종결성’ 이외에 ‘사건 구조(event structure)’도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를 별개의 동사

<sup>9</sup> 정문수(1984)에 의한 (12)의 ‘다가의 검증은 양정석(2004), 김운신(2006)에서 제시한 ‘미완료 역설(imperfective paradox)’과 동질의 개념이다. 비한계동사에 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이 개시된 이후라면 어느 지점에서 종결되더라도 (12a)와 같이 완결된 사건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개시되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다가나 ‘진행상’은 모두 (12a)와 같은 의미를 함의한다. 그러나 한계동사의 진행상은 (12b)와 같은 완결의 의미를 함의하지 못한다. 참고로, 영어의 ‘미완료 역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Dowty(1979)를, 일본어의 ‘미완료 역설’에 대해서는 三原(1997,2004)를 참조하기 바란다.

유형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비한계동사’는 오로지 주체의 동작이라는 비한계적인 사건만을 표상할 수 있는 어휘적 의미를 내재하나 ‘한계동사’는 두 종류의 하위 사건(sub-events)을 표상할 수 있는 어휘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결과상을 실현하는 문법 형태 ‘-어 있-’이다.

- (14) a. 지나가 공원을 걷고 있다.
- b. 지나가 학교까지 걸었다.
- c. \*지나가 학교까지 걸어 있다.
- (15) a. 지나가 학교에 가고 있다.
- b. 지나가 학교까지 갔다.
- c. 지나가 학교에 가 있다.

(14)의 술어 ‘걷다’는 비한계동사이고 (15)의 ‘가다’는 한계동사이다. (14)와 (15)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결과상>이다. 이들 동사는 (14a), (15a)와 같이 ‘-고 있-’과 결합하여 <진행상>을 나타내는 데는 별반 문제가 없으나, ‘-어 있-’과의 공기는 다르다. 즉, 비한계동사의 (14c)는 비문이나 한계동사의 (15c)는 가능하다.

두 번째 주목 사항은 사건의 한계점에 대한 질적 차이이다. (14)의 ‘걷다’는 비한계동사이기에 스스로 사건의 한계점을 설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14b)와 같이 임시적 이동의 한계점을 설정할 수 있는 ‘-까지’와 공기하게 되면 해당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계점을 내적으로 가지지 못하는 ‘비한계동사’라고 하더라도 (14b)와 같은 ‘*アスペクト限定詞(상 한정사)*’의<sup>10</sup> 도움을 받으면 일시적인 ‘한계동사’적 쓰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14c)와 같이 해당 사건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종결되더라도 ‘-어 있-’과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15)의 한계동사 ‘가다’는 해당 사건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사건을 나타내는 <진행상>은 물론 한계점 도달 이후의 사건을 나타내는 <결과상>도 표상한다.

결과적으로 (14), (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アスペクト限定詞(상 한정사)*’

<sup>10</sup> 三原(2004:27)는 姓格名詞句, 「まで(까지)」句 등을 ‘*アスペクト限定詞(상 한정사)*’라 부르고, 이들은 ‘動作の限界点を設定する装置(동작의 한계점을 설정하는 장치)’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민정(2007:147)은 상 변화 요인의 하나로 ‘영화가 편지 한 통을 썼다’와 같은 수량표현을 들었다. 필자도 이와 같은 요소들이 주체의 동작에 대해 일시적인 한계점을 설정하고 또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강제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능을 가진다고 본다. 이와 같은 상 한정사는 동사 유형의 변환을 강제하는 요소이기에 동사 분류 시에는 제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한계점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동사도 이 글 (15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アスペクト限定詞(상 한정사)*’와 공기하여 임시적인 한계점을 설정할 수 있다.

를 통해 해당 사건의 한계점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종결시키더라도 한계동사는 <결과상>을 실현하나 비한계동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차이는 각각의 동사가 가지는 내적 사건 구조에 기인한다.

먼저 한계동사는 (15)에서 보듯이 ‘-고 있-’과 결합하여 <진행상>을 나타내며 ‘-어 있-’과도 결합하여 <결과상>도 실현하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한계동사는 두 종류의 하위 사건을 모두 표상할 수 있는 어휘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운동동사는 각각의 상 의미를 전담하여 표상할 수 있는 어휘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데, 목종균(2015)에서는 <진행상>을 표상하는 어휘적 의미를 [event 1(주체의 변화)]이라고 하였고, <결과상>을 나타내는 어휘적 의미는 [event 2(주체의 변화 결과)]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한계동사는 두 종류의 상 의미를 실현하기에 [event 1]과 [event 2]라는 상적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어휘적 의미를 내재하는 동사이다.<sup>11</sup>

이에 비해 비한계동사는 <진행상>만을 표상하는 동사이다. 따라서 이들 동사는 본유적으로 <진행상>만을 표상할 수 있는 어휘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비한계동사는 (14a)와 같이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의 사건을 표상할 수 있는 어휘적 의미([event 1])만을 내재하며, <결과상>을 표상할 수 있는 어휘적 의미(=[event 2])는 내재하지 못하는 동사이다. 즉 ‘비한계동사’는 어휘적 의미 [event 1]만을 내재하는 동사로 기본적으로 ‘-고 있-’과 공기하여 <진행상>만을 실현하는 동사이다.<sup>12</sup>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의 이와 같은 차이는 아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a. 역으로 가면서 우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를 예사롭게 주고 받았다.

b. 육 년 전 일본으로 징용을 간 채 오늘날까지 소식이 없는 것이다.

(睦 2015:18)

(16a)의 ‘-면서’는 주절과 종속절의 ‘동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16b)

<sup>11</sup> 결과상에 대해 寺村(1984:133)는 “眼前の事態を、ある過去に起こった(完了した)ことの結果(눈앞의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완료된) 사건의 결과”라고 하였다. 이는 결과상을 나타내는 눈앞의 사건은 이를 일으킨 과거의 사건(즉, 이 글의 ‘주체의 변화’)이 반드시 전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외에도 한동원(1999:270)은 결과상태상을 “과거 사건+현재의 상태”라고 하였고, 남승호(2007)는 Vendler(1967)의 동사 중 한계동사(accomplishment, achievement)에 대해 “둘 이상의 하위 사건들(subevents)을 포함하는 복합 사건 구조로 표상(동사68)”된다고 기술하여, 본고와 동일한 입장에 있음을 밝혔다.

<sup>12</sup> 모든 비한계동사는 어휘적 의미 [event 1]를 내재하며 기본적으로는 <진행상>을 실현할 수 있으나 ‘때리다, 반짝하다 등과 같이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비한계동사는 ‘-고 있-’과의 결합이 허용되지 않기에 <진행상>을 실현하지 못한다(이들 동사와 ‘-고 있-’의 결합은 <진행상>이 아닌 <반복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비한계동사는 [event 1]라는 어휘적 의미를 내재하나 모든 비한계동사가 <진행상>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의 ‘-ㄴ/은 채’은 주체의 변화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나, 한계동사 ‘가다’는 이들 형태와 모두 문제없이 결합한다. 동사 ‘가다’가 이들 형태와 결합 가능한 것은 (16a)와 같이 ‘주체가 이동’이라는 한계점 도달 이전의 사건인 [event 1]은 물론 (16b)와 같이 한계점 이후의 사건인 ‘주체의 변화 결과’라는 [event 2]도 표상할 수 있는 동사라는 방증이다.<sup>13</sup>

2. 장에서는 비한계동사와 한계동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두 동사가 가지는 상 자질인 [종결성(telic)]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이들 동사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한계점의 유무에 있어서, 그리고 이들 동사가 표상하는 사건 구조에서도 크게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점진성 동사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는 이들 동사의 어휘적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 3. 점진성 동사에 대하여

현대 한국어의 상 연구와 관련하여, 동사가 가지는 상 자질과 그에 따른 동사 분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油谷(1978)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약 반세기 동안 한국어 상 연구는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점진성 동사’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먼저 ‘점진성 동사’의 정의 및 문법적 특징이다.

(17) a. “変化がだんだん拡大・進展していく過程”

    (“변화가 점차 확대, 진행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

    b. “ダンダン(점점)、次第に(점차)、徐々ニ(서서히)”

    “テクル(-어 오-), テイク(-어 가-), ツツアル(-는 중이다)”와 공기

    (仁田 1982:39)

일본어학에서는 일찍부터 점진성 동사에 주목해 왔는데 특히, 仁田(1982)는 점진성 동사에 대해 (17a)와 같이 정의하고 (17b)와 같은 형태들과의 공기 여부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 글에서도 위 (17)의 仁田(1982)의 주장에 따라 한국어의 점진성 동사에 대해 살

<sup>13</sup> 비한계동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철수가 걸은 채 영화에게 전화를 걸었다.”와 같이 ‘-ㄴ/은 채’와 공기하면 비문이 된다.

피고자 한다.

- (18) a. 눈이 점점 {쌓인다/ 쌓이고 있다} .  
b. 주가가 서서히 {올랐다/ 오르고 있다} .  
(19) a. 야채가 (점점) {시들어 간다/ 시들고 있다} .  
b. 빨래가 {마르는 중이다/ 마르고 있다} .

(18), (19)의 형태들과 문제없이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 현대 한국어의 운동동사 중에도 ‘점진성’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점진성 동사’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들 점진성 동사는 (18), (19)에서 보듯이 ‘-고 있-’과 어울려 <진행상> 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동사 또한 한계동사와 같이 [event 1]라는 어휘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점진성 동사는 한계동사와 동일하게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정해진 결과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는 아래의 (20)과 같이 ‘-어 있-’과의 공기 관계를 통해 확인된다.

- (20) a. 사과가 폭폭 씩어 있었다.  
b. 벌레는 통통하게 살이 찌 있었다.

위의 (18)~(20)를 통해 한국어의 점진성 동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들 동사 유형에 속하는 예를 얼마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21) 굶다, 녹다, (값이) 내리다, 늘다, 닳다, 마르다, 변하다, (강물이) 분다,  
쌓이다, 시들다, 식다, 썩다, (주가가) 오르다, (살이) 찌다, 퍼지다 …

#### 4. 점진성 동사의 ‘종결성’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점진성 동사는 주체의 변화라는 사건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차적으로 그 결과가 축적되어 가는 사건을 나타내며, <진행상> 과 <결과상> 을 모두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점에서는 다른 한계동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점진성 동사가 여타 한계동사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한계동사와 점진성 동사의 ‘종결성’을 고찰하여 이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해 두고자 한다.

- (22) a. 주가가 일주일 만에 올랐다.  
 b.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까지 일주일 걸렸다.  
 c.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다 오르는 데 일주일이 걸렸다.

(10)을 통해 확인한 ‘T-만에’는 한계동사와 공기하면 해당 사건이 시작되어 종결될 때까지의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 그러나 (22)의 점진성 동사와 결합한 ‘T-만에’는 사건의 지속 시간(=(22c))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 개시될 때까지의 시간(=(22b))을 나타내는데 이는 비한계동사가 보이는 양상이다.<sup>14</sup> 즉 점진성 동사는 한계동사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T-동안’, ‘V-다가’도 종결성과 관련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 글의 (11), (12)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T-동안’은 비한계동사와의 공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한계동사와는 공기하여 쓰이지 못하고, ‘V-다가’는 비한계동사와 어울려 ‘미완료 역설’이 성립되나 한계동사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함의하지 못한다. 점진성 동사와 ‘T-동안’, ‘V-다가’의 공기 관계를 살펴보면 (23)과 같이 비한계동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 (23) a. 눈이 한 시간 동안 쌓였다.<sup>15</sup>  
 b. 눈이 쌓이다가 말았다. (=눈이 쌓였다)

그뿐만 아니라 점진성 동사는 (24)와 같이 정도부사 ‘많이’와 어울리면 ‘주어 수량’이 아닌 ‘운동량’을 나타내는데 이 또한 비한계동사와 동일한 반응이다.

- (24) a. 지나가 많이 말랐다.  
 b. 꽃이 많이 시들었다.

아래의 <표 2>는 위에서 검증한 점진성 동사의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sup>14</sup> 예문 (22a)와는 달리 점진성을 가지는 동사 중 ‘녹다’는 T-만에와 공기하여 ‘얼음이 한 시간 만에 녹았다.’와 같이 해당 사건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사건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점진성 동사도 있다. 이는 점진성 동사도 동사가 내재하는 어휘적 의미에 따라 하위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 이와 같은 연유로 본고 <표 2>의 T-만에’는 △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佐野(1998)는 점진성의 한계점 유무에 따라 일본어의 점진성 동사를 두 종류로 하위 분류된다고 주장하였다.

<sup>15</sup> 이 글 (21)에서 예시한 점진성 동사 중 “신발이 한 시간 동안 닳았다”, “꽃이 한 시간 동안 시들었다”와 같이 ‘T-동안’과 어울리기 어려운 동사들도 있어, <표 2>에는 △으로 처리하였다.

<표 2> 점진성 동사의 검증 결과

구 분	비한계동사	점진성 동사	한계동사
변화의 유무	×	○	○
‘-어 있’과의 공기	×	○	○
‘T-만에’	×	△	○
‘T-동안’	○	△	×
‘T-다가 (미완료 역설)’	○	○	×
정도부사 (많이)	운동량	운동량	주어 수량

위의 <표 2>를 보면 점진성 동사는 ‘주체의 변화’라는 사건을 나타내고 ‘-어 있’과 공기하여 <결과상>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동사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검증에서는 비한계동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이처럼 점진성 동사는 한계동사의 자질과 비한계동사의 성격을 함께 내재하고 있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소속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 5. 점진성 동사의 ‘사건 구조’

앞 장에서 점진성 동사의 종결성을 중심으로 이들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한계동사이면서 비한계동사의 자질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계동사와 점진성 동사의 ‘사건 구조’에 대해 비교 검토하여 이들 동사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한계동사와 점진성 동사가 나타내는 ‘하위 사건의 전개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5) a. 지나가 학교에 {가고 있다/ 가 있다}.

b. \*지나가 점점 학교에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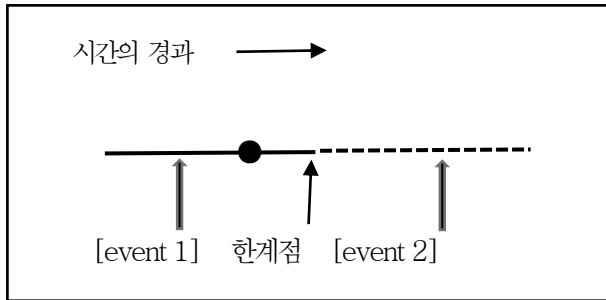
(26) a. 소문이 학교에 {퍼지고 있다/ 퍼져 있다}.

b. 소문이 점점 학교에 퍼진다.

(25)의 술어 ‘가다’는 한계동사, (26)의 ‘퍼지다’는 점진성 동사인데, (25a)와 (26a)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 동사는 모두 <진행상>과 <결과상>을 실현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

글 2.3.2에서 이미 살폈듯이 이들 동사가 내적으로 두 종류의 하위 사건을 모두 표상할 수 있는 어휘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25)와 (26)의 ‘가다, 퍼지다’는 두 동사 모두 상적으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어휘적 의미, 즉 [event 1]와 [event 2]를 내재하고 있는 동사이다. 그러나 (25b)와 (26b)에서 알 수 있듯이 점진성을 나타내는 부사 ‘점점’과의 공기에 있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다. 다시 말해, 두 동사는 적어도 ‘점진성’이라는 자질에 있어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하위 사건을 어떻게 전개시키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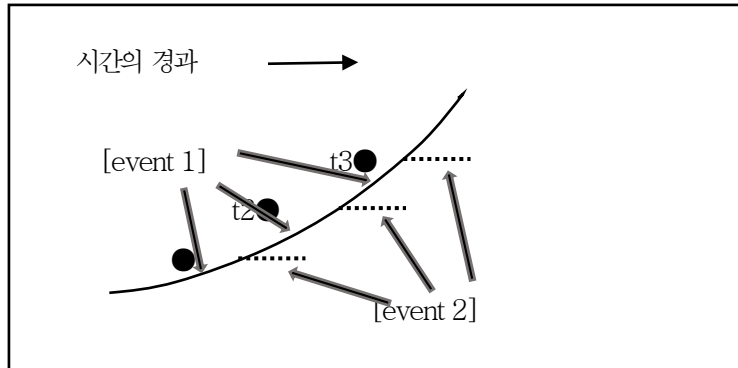
(25)의 ‘지나가 학교에 가’라는 사건은, 먼저 주체가 이동의 한계점인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건(=[event 1])과 한계점에 도달하여 종결된 주체의 변화 결과(주체가 학교에 존재)가 지속하는 사건([event 2])이 ‘한계점’을 경계로 좌우로 배치되는 전개 방식을 취한다. 즉, (25)의 한계동사에 의한 사건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듯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event 1] → [event 1]’의 순으로 펼쳐지는 ‘비점진적인 전개 방식을 취하는 사건’이다([그림1] 참조).



[그림 1] 한계동사에 의한 사건 전개 방식

점진성 동사도 한계동사와 같이 [event 1]과 [event 2]를 표상할 수 있으나 그 사건의 전개 방식은 한계동사와는 사뭇 다르다.





[그림 2] 점진성 동사에 의한 사건 전개 방식

점진성 동사에 의한 사건은 ‘주체의 변화([event 1])’라는 하위 사건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진행되면서 동시에 ‘주체의 변화 결과([event 2])’도 조금씩 축적되어 가는 사건이다. 따라서 점진성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그림 2]와 같이 [event 1]과 [event 2]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점진적인 사건 전개 방식’을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동사에 의한 사건은 [event 1]이 한계점 ‘t1’에 도달하더라도 새로운 한계점 ‘t2’, ‘t3’을 향해 다시 진행될 수 있다.<sup>16</sup> 물론 [event 1]이 각각의 한계점인 ‘t1’, ‘t2’, ‘t3’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마다 해당 사건은 종결되고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event 2]가 나타난다.

한계동사와 점진성 동사의 두 번째 구별은 이들 동사가 가지는 ‘한계점’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한계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그림 1]처럼 [event 1]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는 [event 1]이 진행되는 일은 없다. 학교에 도착한 주체가 더 학교에 갈 수 없듯이 한계동사에 의한 한계점은 [event 1]을 반드시 종결시키는 절대적인 일회성이란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점진성 동사에 의한 한계점은 [그림 2]에서 보듯이 [event 1]이 종결되더라도 재설정 가능한 자의(恣意)적인 한계점이다. 이와 같은 한계동사와 점진성 동사가 가지는 ‘한계점’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래의 (27)이다.

(27) a. \*강아지가 아까보다 더 죽었다. (한계동사)

b. 주가가 아까보다 올랐다. (점진성 동사)<sup>17</sup>

<sup>16</sup> 仁田(2002:173)는 일본어의 점진성 동사에 대해 ‘終端性・限界を持たない進展性を有する動詞(사건의 끝점, 한계를 가지지 않는 점진성을 갖는 동사)’라고 규정하였다.

<sup>17</sup>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의 한계성 유무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단수 사건(single event)인 경우에 한정하여 구별하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점진성’ 또한 단수 사건에 한정하여 해당 사건이 나타내는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대, 진행해 가는 과정인가 아닌가를 따진다. 따라서 (27)의 ‘아까보다(더)’도

## 6. 나오기

이 글에서는 Vendler(1967)가 제창한 상 자질 중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를 구분 짓는 ‘중결성[±telic]’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계동사와 점진성 동사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 한국어의 문법 형태 중, 상(aspect) 연구는 시제와 함께 많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어 왔고 그 덕분에 타 문법 범주에 비해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점진성 동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연구가 없었고 그동안 한계동사와 동일한 유형으로 취급받아 왔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한계동사와 점진성 동사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를 소상하게 살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한계동사와 점진성 동사는 ‘변화’라는 사건을 나타내며 결과상을 실현하는 ‘-어 있-’과 공기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T-동안’, 미완료 역설을 나타내는 ‘T-다가’, 그리고 정도부사 ‘많이’의 해석에 있어 한계동사와 점진성 동사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점진성 동사에 의한 사건 전개 방식과 한계점이 한계동사와 크게 다름을 밝혔고, 점진성 동사는 한계동사와 비한계동사의 경계선에 있음을 밝혔다.

그렇다고 이 글의 성과가 점진성 동사의 정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나라하게 밝혀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 글은 단지 그 입구의 모습을 대략 그려냈을 뿐 산더미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그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은’과의 결합이다.

- (28) a. (어제) 깨진 창문을 수리하려고 해요. (한계동사)  
 b. (\*어제) 식든 채소를 요리하려고 해요. (점진성 동사)

(28)의 두 문장은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은’과의 공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건시를 나타내는 ‘어제’와 결합하게 되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sup>18</sup> (28)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찰해야 할 것이나 한계동사와 점진성 동사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

해당 사건이 ‘단수 사건(single event)’임을 전제하여 점진성 유무를 확인하는 검증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한정된다. 즉, 이 글에서의 점진성은 (하나의) 해당 사건이 나타내는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대, 진행해 가는 과정의 점진성이다. 따라서 “옷에 주름이 아까보다 더 갔다.”와 같이 복수 사건과 어울리는 ‘아까보다 (더)’는 이 글의 고찰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

<sup>18</sup> 관형사형 어미 ‘-ㄴ/은’과 어울리는 점진성 동사가 사건시와 어울리는 경우 (28b)와 같이 모두 비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제 쌓인 눈을 치우려고 해요(사독자)”와 같이 (28b)와는 달리 사건시를 나타내는 어휘와 자유롭게 어울리는 동사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또한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성과는 운동동사 전체를 놓고 보면 매우 주변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이 글이 한국어의 동사 연구라는 큰 물줄기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고영근(2006), 동작상에 대한 이해, 한국어학 30 호, 한국어학회, pp.1-30
- 김성화(1992), 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 김윤신(2006),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어휘상,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pp.31-61
- 김치균(1997), 우리말의 시제 연구와 상 인식, 태학사
- 김천학(2014), 한국어 동사의 종결성(telicity)에 대한 연구, 언어와 정보 사회 21,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p.23-51
- 남승호(2007), 한국어 술어의 사건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 목종균(2015), 결과상과 동사의 범주적 의미, 朝鮮語教育-理論と實踐, 朝鮮語教育学会, pp.4-31
- 박덕유(1998), 국어의 동사상 연구, 한국문화사
- 박소영(2004), 한국어 동사구 수식 부사와 사건구조, 국어학회
- 박소영(2011), 한국어 어휘상에 대한 통사론적 접근, 형태론 13(2), pp.335-361
-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양정석(2002), 시사성과 논항연결, 태학사
- 양정석(2004), -고 있-과 -어 있-의 상보성 여부 검토와 구문 규칙 기술, 한글 266, 한글학회, pp.105-137
- 오충연(2006), 상과 통사구조, 태학사
- 油谷幸利(1978), 現代韓國語의 動詞分類-aspect 를 中心으로-, 朝鮮學報 87, 朝鮮學會, pp.1-35
- 이남순(1987), 시제-상-서법, 월인
- 이재성(2001), 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 이지량(1982), 현대국어의 시상형태에 대한 연구: '-있-', '-고 있-', '-어 있-'을 中心으로, 국어연구 51, 국어연구
- 정문수(1984), 相的 特性에 따른 韓國語 풀이씨의 分類, 문법연구 제5집, 문법연구회, pp.51-85
- 조민정(2000), 국어의 상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민정(2007), 한국어에서 상의 두 양상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사
- 한동원(1999), -고 있-'구성의 重義性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5권, 한국어의미학회, pp.215-248
- 한동원(2000), -어 있-'구성의 결합제약에 대하여, 형태론, 박이정
- 박종후(2016), 보조용언 '있다'의 결합 제약과 상적 의미 해석 - 본용언의 개념구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국어학회 國語學 77, pp. 131-165
- 奥田靖雄 (1977)、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教育国語 53・54 (ことばの研究・序説に再録)
- 奥田靖雄 (1985)、ことばの研究・序説、むぎ書房
- 影山太郎 (1993)、文法と語形成、ひつじ書房
- 影山太郎 (1996)、動詞意味論-言語と認知の接点-, くろしお出版
- 金水 敏 (1994)、連体修飾の「~た」について、田窪行則(編) 日本語の名詞修飾表現、くろしお出版、p. 29-65
- 工藤真由美 (1995)、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現代日本語の時間表現-, ひつじ書房
- 佐野由紀子 (1998)、程度副詞と主体変化動詞との共起、日本語科学 3、国立国語研究所, pp. 7-22
- 寺村秀夫 (1984)、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II、くろしお出版

中右 実 (1995)、認知意味論の原理、大修館書店  
仁田義雄 (1982)、動詞の意味と構文-テンス・アスペクトをめぐって-、日本語学 1 (2)、pp.33-42  
仁田義雄 (2002)、副詞的表現の諸相、くろしお出版  
浜之上幸 (1991)、現代朝鮮語のアスペクト的クラス、朝鮮学報 138、朝鮮学会  
三原健一 (1997)、動詞のアスペクト構造、中右実 (編) ヴォイスとアスペクト、研究社出版  
三原健一 (2004)、アスペクト解釈と統語現象、松柏社  
森山卓郎 (1988)、日本語動詞述語文の研究、明治書院  
Dowty, David / 1979 /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 Reidel  
Smith, C. / 1991 / The Parameter of Aspect / Kluwer  
Vendler, Z. / 1967 / Linguistics and Philosophy / Cornell University Press

이 글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더욱 체계적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읽어 주신 사독자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近畿大学理工学部)

ssaulabim@kindai.ac.jp

---

## 韓国語教育研究（第11号）

2021年9月15日 発行

---

発行者 文 慶喆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匂康裕 研究室気付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金世徳、柳朱燕

印刷所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